

200자 안내

오늘도 어제가 부끄럽다

이경자 지음

19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확인」으로 등단한 이후 「절반의 실패」, 「머나먼 사랑」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저자의 산문집. 1979년에 쓴 글에서부터 최근의 방송원고용 칼럼에 이르기까지 10여년에 걸쳐 썼던 글들을 한데 모았다. '우리가 통속적이라고 여기는 씩스러움이 인생의 실체'라고 적고 있는 저자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솔직 담백하게 그려져 있다.

현대문화센터 / A5신 / 284면 / 3800원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김영한 지음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장인 저자가 최근 동·서독의 통일을 바라보며 한국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과제와 사명을 기술한 책. '복음주의적 통일신학을 향하여'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자는 민족분단과 통일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한국교회가 북한의 개방화와 남한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만 / A5신 / 322면 / 5000원

우수관리자의 노하우 100

한치규 엮음

기업 환경이 날로 격변해 가는 오늘날, 관리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이다. 이 책은 생산성 존중에서 인간성 존중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경영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자가 유념해야 할 100가지의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관리자의 생존전략, 혁신의 전략, 문제해결의 기법, 기획, 목표 설정, 부하육성, 자기개발 기법 등 총 7장으로 구성.

신세대 / A5신 / 394면 / 6000원

우리들의 서글픈 주식이야기

정규재 지음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인 저자가 6년여에 걸쳐 증권가와 그 주변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들을 쓴 책.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이루어

진 '증권대중화'가 우리의 경제정의와 어떻게 배리되어 왔는가를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투기정신' 조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 증권시장의 본질을 정치·경제 민주화와 연관시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민맥 / A5신 / 282면 / 3800원

지구를 파괴하는 범죄자들

天竺啓祐 지음 / 강현·김원식 옮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은 아직 미약하다. 나아가 올바른 관점에서 공해와 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책은 지구의 환경오염문제를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선진 다국적기업의 본질과 이에 협조하는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집단적 실천을 제기하고 있다.

푸른산 / A5신 / 194면 / 3200원

朴榮濬文學賞 受賞小説集

정소성 외 지음

晩牛 박영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박영준문학상의 제1, 2회 수상작품을 묶었다. 제1회 본상 수상작인 정소성씨의 「말」, 우수상 수상작인 정건영씨의 「빈 그네 소리·골패」와 제2회 본상 수상작인 최상규씨의 「악령의 늪」, 우수상 수상작인 강난정씨의 「바다의 묵시록」 등 4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수상작가들에 대한 작가론도 아울러 실고 있다.

백문사 / A5신 / 262면 / 3000원

섬들은 바다에서 서로 만난다

오소라즈니쉬 지음 / 박광수·김대환 옮김

성자요 명상가로 잘 알려진 저자의 가르침의 핵심들만 뽑아 모았다.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기자신과 만날때 인간은 참 자유와 진실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저자의 가르침은 혼탁한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신선한 깨우침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존재에의 끊임없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이 책 갈피마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정 / A5신 / 224면 / 3500원

氣象과 健康

홍성길 지음

대전지방 기상대장으로 재직중인 저자가 기상과 인간의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책. 기상이 건강에 미치는 현상들을 수집하여 인간이 기상에 어떻게 적응해 왔으며 해나갈 것인지를 정리하고 있다. 의학과 기상, 지구의 대기, 대기환경요소, 환경과 생태, 온도와 복사에 대한 적응, 압력에 대한 적응, 질병과 기상, 질병의 계절성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학연구사 / A5신 / 296면 / 5000원

새로운 세계를 위한 철학 1,2

동독 사회과학아카데미 펴냄 / 박정수 옮김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으로부터 1970년대의 발전된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 책.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각각의 역사단계에서 이룩된 인식의 진전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원전의 인용과 인물 및 저작의 사진들을 수록, 책을 읽는 흥미를 더해준다.

새물결 / A5신 / 각 376면 내외 / 각 5300원

어둠 속의 세월

이종한 지음

「폐선」 연작으로 MBC 청소년문학상, 부산 MBC 신인문예상, KBS 방송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의 첫 소설집. 「제국의 땅」, 「어둠 속의 세월」, 「歲寒圖」, 「폐선」 등 4편의 중편이 수록되어 있다. 反美문제, 핵, 수입개방과 농촌, 이촌의 피폐화 등 80년대 후반의 우리사회의 현안들을 치열한 문제의식과 뜨거운 애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의 특징이다.

성림 / A5신 / 272면 / 3500원

당신을 S.O.B라 부르거든 웃어라

엘 뉴하트 지음 / 홍동선 옮김

사우스다코타 달동네 출신의 가난한 소년인 미국 최대 언론기업의 정상에 서기까지의 불꽃같은 인생 전락전술. 보잘것 없는 지방 언론기업 가네트를 일약 미국 최대의 종합 언론그룹으로 키웠고, 「USA Today」라는 전국지를 창간하여 불과 몇년 사이에 세계적인 신문으로 성장시키기까지의 저자의 체험과 경영방식, 인생철학 등을 고백적으로 기술한 자서전.

동아출판사 / A5신 / 350면 / 4200원

지금은 묻어둔 그리움

도종환 지음

「접시꽃 당신」의 시인인 저자가 시인으로, 교사로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정리한 산문집. 그동안 살면서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함께 세상일을 겪었던 동시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와, 참교육운동을 하면서 저자가 보고 겪은 현실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높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적고 있다.

푸른나무 / A5신 / 270면 / 3600원

西洋史의 基礎知識

木村尙三郎 외 지음 / 편집부 옮김

일반적인 서양사 개설서가 서술식임에 비해 이 책은 서양사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 개념이나 사실을 추출·정리하고 있는 사전적 성격을

지닌 책이다. 유럽을 지역에 따라 세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역사연구에 있어 간과되기 쉬운 생활사와 심성사의 영역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서양 문화의 구체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다.

신서원 / A5신 / 396면 / 5000원

리더십 철학

크리스토퍼 핫지킨슨 지음 / 안정호 옮김

철학부채의 리더십 기술주의를 반박, 리더십에 있어서의 철학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책. 20세기 말에 행정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 문제이다. 리더십을 기술적인 관리와 구분하고, 행정과 동일시하며 행정을 일종의 가치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대명문화사 / A5신 / 304면 / 5000원

병상에 떠오른 生命의 무지개

이훈정 지음

1962년 적십자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 병원, 고려병원, 광명병원을 거쳐 현재 동인천 길병원 간호과장으로 재직중인 저자가 신앙을 바탕으로 30여년간 몸담아온 일선 간호사 생활을 그리고 있다. 생생한 체험을 소개로 환자에 대한 애정, 간호사들의 애환, 기쁨과 희망 등이 저자의 독실한 신앙체험과 함께 잘 나타나 있다.

예찬사 / A5신 / 276면 / 3500원

찢어진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의용 지음

‘보물찾기하듯 주위에 감추어진 새로운 것을 찾는 생활’을 강조하는 저자의 칼럼집. ‘빨간 우산으로’, ‘파란우산으로’, ‘찢어진 우산으로’ 등 3부로 나누어 50여편의 칼럼을 수록하고 있다. ‘젖어 있는 마음은 언제나 우산을 받는다’는 저자의 말처럼 늘 젖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저자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대림기획 / A5신 / 208면 / 3300원

문체론 강의

J.M. 머리 지음 / 최창록 옮김

문학비평의 입장에서 기술한 문체론의 고전. 문체를 해명하고 그 본질을 고찰하여 창작의 핵심에 이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작가 또는 비평가들의 구체적인 실례를 풍부하게 인용, 원론적 고찰이 추상론에 빠지지 않는 실천적인 문체론이다. 전6장으로 구성. 문체의 의미와 심리, 시와 산문, 중심문제, 창조적 문체의 과정, 영어 성서와 장중체 등을 수록하고 있다.

현대문학 / A5신 / 180면 / 4000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생명과 사랑의 짧은 해답

소노 아야코 지음 / 정성호 옮김

저자의 주요 작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발췌하여 묶은 책.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인간, 인생에 대한 깊은 상념과 통찰에 의거한 저자의 철학과 인생관, 문학관의 진수들만이 수록되어 있다. 짧은 세대의 생활리듬에 맞게 틈나는 대로 아무데나 펼쳐서 한 귀절씩 꼼꼼히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언어문화사 / A5변형 / 296면 / 3800원

북한의 교육학

김동규 지음

북한의 교육원리와 교육이념, 학교교육과정의 실체를 북한의 원전을 충실하게 인용, 주관적 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 총3장으로 구성된 가운데 1장은 북한의 교육과 교육학의 기본원리, 2장은 교육학 일반론, 3장은 북한의 학교교육론을 다루고 있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심리학에 입각한 북한교육의 총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문맥사 / A5신 / 574면 / 9000원

달과 놀던 아이

L. 뒤발 뤼시앵 지음 / 최영인 옮김

예수회 신부인 저자가 스스로 알콜중독에서 헤어나고자 노력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꿈을 지켜나가는 자기고백적 기록. 시인이고 작곡가이며 기타 연주자, 가수였고 탁월하고 예리한 신학사상을 지녔던 저자가 시와 노래로 복음활동을 전개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참 종교인의 사랑과, 삶의 의지 등을 읽을 수 있다.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182면 / 2700원

官僚制와 民主主義

에바 에치오니-할레비 지음 / 윤재풍 옮김

관료제와 민주정치에 관한 일반적인 개설서.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마르크스, 미헬스, 모스크, 베버 등의 고전적 이론과 함께 다윈론, 조합주의론 등 현대의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서구 여러국가들의 관료제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관료제와 민주주의간에 전개되는 갈등과 마찰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대영문화사 / A5신 / 330면 / 5500원

이렇게 대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라

한국남 지음

늘어가는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며 올바른 성교육을 하기 위한 지침서. 性정보의 범람과 신체조속화에 따르지 못하는 정신적,

사회적 미숙상태의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법론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성교육의 필요성과 남녀의 신체구조와 성지식, 자녀의 단계에 따른 대화와 접촉방법, 청소년 비행의 진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우 / A5신 / 332면 / 3800원

계간지

著作權 (1990년 가을)

[특집 I]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법률문제(김문환)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국제적 동향(한승헌) ▲데이터베이스와 DB산업의 현장(김일환)

[특집 II] 저작권 세미나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경과와 전망(최태창) ▲저작권 국제모델법의 제정방향(윤희창) ▲저작권의 새로운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이정훈)

[국제회의] 저작권법 모델 규정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제3차 회기(前)(최경수)

[외지번역소개] ▲소련 저작권 제도의 해설(김상호) ▲實演者의 저작권 인정 여부(정상기) ▲WIPO의 저작권 활동(이재완)

[외국기관순례] 미국의 복사 복제 관리기구 CCC(최연희)

[사례연구] 저작권 관련 질의와 응답

[자료] ▲제2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필 ▲저작권 국제 모델법(초안) 주요내용(윤희창) ▲저작권 일지 ▲저작권 관련소논문. 발제일람 ▲소장도서 목록 ▲저작권관련 기사색인 ▲저작권 등록 현황 ▲「계간 저작권」 창간호 ~제10호 주요 목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B5 / 150면 / 2000원

화제의 책

韓國書誌學原論

안춘근 지음



험한 산을 등정할 때의 가이드의 역할에 비유되면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던 합리적인 학문연구를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인 서지학은 그 방법론적 중요성에 걸맞는

연구의 집적이나 일반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서지학 분야에 35년간 몸담아온 안춘근씨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책 「한국서지학원론」을 펴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1장 한국의 書誌, 2장 古書의 知識, 3장 圖書의 鑑別, 4장 古書의 分類 등으로 크게 나뉜 이 책은 특히 古書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고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서지학의 절반을 아는 것이다. 신간서가 문화의 꽃이라면 고서는 그 뿌리이고, 그 뿌리인 고서의 자양 없이는 새로운 학문의 정립이 불가능해진다”는 저자의 뜻 때문.

딱딱한 논문의 냄새를 가능한 없애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부담없는 입문을 위해 알기 쉽게 쓰려한 점이 특징이다.

범우사 / A5신 / 456면 / 10000원

이색출판

숨어서 쓴 섬나라이야기

현기영 외 지음



제주출신의 작가들이 제주민중의 삶과 역사를 소재로 쓴 단편·중편들을 모은 이색적인 기획소설집.

섬이라는 독특한 지형학적 이유로 현재까

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역사적으로도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겪어왔던 제주도. “고립무원의 환경을 극복하려는 자생적 저력과 집권중양으로부터 소외된 지방문화의 끊임없는 저항의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정신”으로 설명되는 ‘탐라정신’을 이곳에 모태를 둔 작가들의 소설을 통하여 확인하는 한편, 민족정신의 독특한 한 변형이라 할 이 정신을 통해 나날이 상실되어가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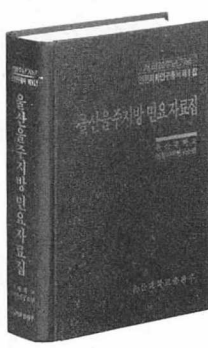
“옛날에 탐라국이라는 섬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에 예측되어 있다. ...그 나라의 영산 한라산에 숨어든 지사들이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그들 말로 쓴 이야기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그 필사본이라는 설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엮은 편집자들의 풍자적인 서언.

태성 / A5신 / 324면 / 3800원

자료집

울산울주지방민요자료집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엮음



국내최대의 공업지역으로 가속화되는 도시개발에 밀려 전통문화가 인멸위기에 처해 있는 울산·울주 지역의 전통민요 자료를 5년여에 걸쳐 발굴·조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

울산대학 개교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인문과학연구소총서 중 첫째권인 이 책은 현지에서 수집한 총 2031수의 민요 중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유행민요 등 지역 특성이 없는 일부민요를 제외한 1522수에, 기존자료 및 문헌에서 찾아낸 512수를 합하여 모두 2034수가 노동요, 의식요, 동요, 단편민요, 장편민요 등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누어 실려 있다.

특히, 권말에 조사지역별로 조사장소·시간·조사자·조사분야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조사일지와 400여 제보자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조사지역별 지리적 특징 및 주민들의 생활실태 등도 상세히 기록돼 있어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울산대학교출판부 / A5신 / 962면 / 25000원

